

## '23.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전산업 생산은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 부진에도 3개월 연속 증가
- 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모두 증가, 동행지수도 6개월만에 상승 전환

'23.2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이 감소했으나, 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 생산이 늘며 전산업 생산이 증가하였고, 지출측면에서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비, %)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1 → 2월	0.1 → <b>0.3</b>	2.4 → <b>△3.2</b>	△0.5 → <b>0.7</b>	△1.1 → <b>5.3</b>	△2.5 → <b>0.2</b>	4.9 → <b>6.0</b>

먼저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2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3.2%)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0.7%), 공공행정(5.8%), 건설업(6.0%)에서 늘어나 전월비 0.3% 증가(전년동월비 2.9%)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1차금속(5.1%)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7.1%), 자동차(△4.8%) 등에서 줄면서 전월보다 3.2% 감소(전년동월비 △8.1%)하였고,

\* 광공업 생산(전월비, %): ('22.7)△1.4 (8)△2.2 (9)△1.2 (10)△3.7 (11)△0.4 (12)△3.1 ('23.1)2.4 (2)△3.2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8.0%), 예술·여가(12.1%) 운수·창고(5.4%)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되며 전월 대비 0.7% 증가(전년동월비 7.2%)하였다.

\*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 ('22.7)0.9 (8)0.8 (9)0.3 (10)△0.4 (11)△0.8 (12)1.6 ('23.1)△0.5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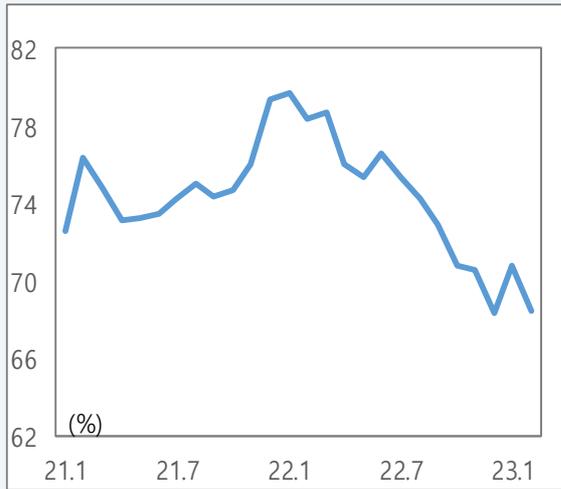
		'21					'22				'23.1월	2월	
		1/4	2/4	3/4	4/4		1/4	2/4	3/4	4/4			
소산업	<전기비, %>	-	1.8	1.0	0.6	2.6	-	1.6	0.8	0.4	△1.5	0.1	0.3
	<전년동기비, %>	5.3	2.0	8.0	4.6	6.7	4.6	5.2	5.6	5.5	1.9	△1.3	2.9
광공업	<전기비, %>	-	3.3	△1.3	1.7	2.9	-	3.2	△2.3	△2.4	△6.4	2.4	△3.2
	<전년동기비, %>	8.2	6.4	12.6	6.7	7.3	1.4	5.8	5.6	1.4	△6.4	△13.0	△8.1
서비스업	<전기비, %>	-	1.2	2.2	0.3	2.6	-	0.8	2.9	1.7	0.1	△0.5	0.7
	<전년동기비, %>	5.0	0.8	7.4	4.7	6.9	6.7	5.6	6.8	8.5	5.8	4.8	7.2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4%로 전월 대비  $\Delta 2.4\%p$  하락하였으며,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0.1%로 전월 대비  $\Delta 0.7\%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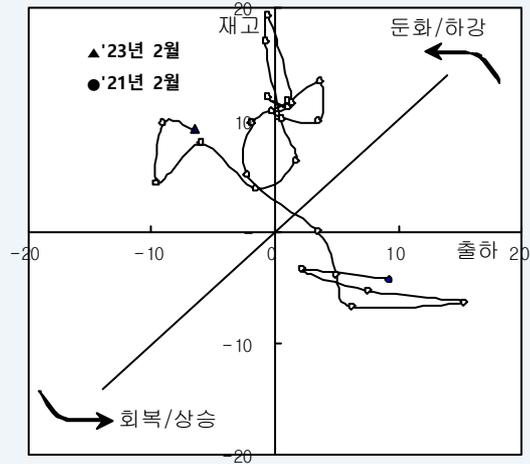
\* 제조업 평균가동률(%): (22.7)75.4 (8)74.2 (9)72.9 (10)70.8 (11)70.6 (12)68.3 ('23.1)70.8 (2)68.4

\* 재고/출하비율(%): ('22.7)111.3 (8)109.2 (9)107.6 (10)111.3 (11)117.6 (12)117.9 ('23.1)120.8 (2)120.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제조업 재고출하순환도**



다음으로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기성이 모두 증가한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내구재(4.6%), 준내구재(3.5%), 비내구재(6.4%) 판매가 모두 증가하며 전월 대비 5.3% 증가(전년동월비  $\Delta 0.8\%$ )하였고, 특히 업태별로는 면세점(18.3%) 판매가 중국의 방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개선된 점이 두드러진다.

\* 소매판매(전월비, %): ('22.7) $\Delta 0.3$  (8)2.6 (9) $\Delta 2.5$  (10)1.6 (11) $\Delta 2.3$  (12) $\Delta 0.2$  ('23.1) $\Delta 1.1$  (2)5.3

		'21					'22					'23.1월	2월
			1/4	2/4	3/4	4/4		1/4	2/4	3/4	4/4		
소매판매	<전기비, %>	-	<b>2.9</b>	<b>1.5</b>	<b>1.1</b>	<b>0.5</b>	-	$\Delta 0.7$	$\Delta 1.0$	<b>0.3</b>	$\Delta 0.9$	$\Delta 1.1$	<b>5.3</b>
	<전년동기비 %>	5.8	6.3	5.0	5.4	6.6	$\Delta 0.3$	2.6	$\Delta 0.2$	$\Delta 0.9$	$\Delta 2.3$	$\Delta 0.9$	$\Delta 0.8$
내구재	<전기비, %>	-	<b>3.0</b>	$\Delta 0.6$	$\Delta 1.3$	<b>0.1</b>	-	$\Delta 0.7$	$\Delta 2.9$	<b>0.8</b>	$\Delta 0.1$	<b>2.5</b>	<b>4.6</b>
	<전년동기비 %>	6.3	17.9	3.4	3.7	2.2	$\Delta 3.2$	$\Delta 2.4$	$\Delta 4.9$	$\Delta 2.5$	$\Delta 2.9$	$\Delta 1.8$	0.8
준내구재	<전기비, %>	-	<b>4.8</b>	<b>5.4</b>	<b>2.2</b>	<b>2.6</b>	-	$\Delta 1.7$	<b>1.5</b>	$\Delta 0.1$	$\Delta 4.0$	$\Delta 0.8$	<b>3.5</b>
	<전년동기비 %>	12.7	10.6	10.5	13.2	15.8	2.2	7.8	5.3	2.4	$\Delta 4.5$	$\Delta 1.1$	3.1
비내구재	<전기비, %>	-	<b>2.0</b>	<b>1.5</b>	<b>2.0</b>	$\Delta 0.1$	-	$\Delta 0.4$	$\Delta 1.2$	<b>0.3</b>	<b>0.0</b>	$\Delta 2.7$	<b>6.4</b>
	<전년동기비 %>	3.2	$\Delta 0.3$	3.6	4.0	5.3	0.3	3.4	0.4	$\Delta 1.4$	$\Delta 1.1$	$\Delta 0.7$	$\Delta 2.8$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3.0%) 투자가 줄었으나,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1.3%) 투자가 늘며 전월 대비 0.2% 증가(전년동월비 5.7%)하였다. 다만,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69.8%), 민간(△21.5%)에서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30.6% 감소(전년동월비 △8.5%)하였다.

\* 설비투자(전월비, %): ('22.7)△1.8 (8)8.9 (9)△1.8 (10)0.1 (11)0.3 (12)△6.1 ('23.1)△2.5 (2)0.2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3.1월	2월
설비투자	<전기비, %>	-	<b>6.3</b>	<b>1.4</b>	<b>△1.7</b>	<b>△0.4</b>	-	<b>0.4</b>	<b>△0.4</b>	<b>8.6</b>	<b>△0.2</b>	<b>△2.5</b>	<b>0.2</b>
	<전년동기비 %>	9.6	12.4	13.2	6.2	6.2	3.3	△1.3	△2.4	7.5	9.6	△4.9	5.7
기계류	<전기비, %>	-	<b>8.9</b>	<b>△0.2</b>	<b>△0.6</b>	<b>0.8</b>	-	<b>△1.5</b>	<b>△0.2</b>	<b>9.6</b>	<b>△0.3</b>	<b>△7.3</b>	<b>1.3</b>
	<전년동기비 %>	13.8	20.1	17.0	9.4	9.1	2.9	△2.4	△2.0	8.0	8.5	△5.0	1.5
운송장비	<전기비, %>	-	<b>△0.5</b>	<b>6.4</b>	<b>△5.0</b>	<b>△3.9</b>	-	<b>6.8</b>	<b>△1.0</b>	<b>5.5</b>	<b>0.4</b>	<b>13.0</b>	<b>△3.0</b>
	<전년동기비 %>	△1.8	△7.4	3.5	△2.2	△1.4	4.3	2.6	△3.8	5.9	13.0	△4.5	19.2
기계수주	<전기비, %>	-	<b>32.4</b>	<b>△1.3</b>	<b>2.1</b>	<b>0.1</b>	-	<b>1.9</b>	<b>△1.7</b>	<b>14.6</b>	<b>△23.4</b>	<b>53.0</b>	<b>△30.6</b>
	<전년동기비 %>	33.7	20.7	43.6	36.3	36.5	1.4	4.0	2.3	13.8	△13.4	3.7	△8.5

건설기성은 재건축 아파트 공사 실적 증가, 반도체공장 건설 진척, SOC 집행 증가 등으로 건축(6.6%)과 토목(3.9%) 모두 늘어나며 전월 대비 6.0% 증가(전년동월비 22.4%)하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 대비 △28.5% 감소(전년동월비 △7.4%)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투자(전월비, %): ('22.7)△1.6 (8)3.1 (9)△0.6 (10)4.7 (11)△0.7 (12)△0.9 ('23.1)4.9 (2)6.0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3.1월	2월
건설기성	<전기비, %>	-	<b>△2.9</b>	<b>△3.3</b>	<b>△0.6</b>	<b>2.4</b>	-	<b>0.5</b>	<b>△0.1</b>	<b>0.8</b>	<b>4.6</b>	<b>4.9</b>	<b>6.0</b>
	<전년동기비 %>	△6.7	△8.8	△7.2	△8.1	△3.1	2.7	△1.7	2.0	3.5	6.4	3.7	22.4
건축	<전기비, %>	-	<b>△1.1</b>	<b>△1.8</b>	<b>0.9</b>	<b>2.4</b>	-	<b>0.3</b>	<b>△0.4</b>	<b>2.4</b>	<b>4.3</b>	<b>8.7</b>	<b>6.6</b>
	<전년동기비 %>	△3.4	△7.8	△4.7	△3.3	1.7	4.2	1.1	3.0	4.7	7.3	7.0	27.1
토목	<전기비, %>	-	<b>△7.3</b>	<b>△7.3</b>	<b>△4.7</b>	<b>2.4</b>	-	<b>1.0</b>	<b>0.8</b>	<b>△3.8</b>	<b>5.4</b>	<b>△6.5</b>	<b>3.9</b>
	<전년동기비 %>	△14.9	△11.4	△13.6	△20.8	△14.2	△1.4	△9.4	△1.1	△0.3	4.0	△6.8	7.5
건설수주	<전기비, %>	-	<b>1.9</b>	<b>△4.1</b>	<b>1.6</b>	<b>△1.8</b>	-	<b>18.2</b>	<b>3.1</b>	<b>9.1</b>	<b>△41.2</b>	<b>74.0</b>	<b>△28.5</b>
	<전년동기비 %>	9.2	26.5	18.7	3.7	△2.9	10.1	13.2	22.2	30.5	△17.4	18.4	△7.4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그간 5개월 연속 하락했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만에 상승 전환(+0.4p)하였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 증가, 기계류 내수출하 감소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0.3p)한 것으로 나타났다.

	'2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4	100.4	100.6	100.9	100.8	100.7	100.1	99.4	99.0	<b>99.4</b>
전월차(p)	0.0	0.0	+0.2	+0.3	△0.1	△0.1	△0.6	△0.7	△0.4	<b>+0.4</b>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2	100.3	100.1	99.9	99.8	99.8	99.5	99.1	98.8	<b>98.5</b>
전월차(p)	+0.1	+0.1	△0.2	△0.2	△0.1	0.0	△0.3	△0.4	△0.3	<b>△0.3</b>

2월 산업활동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부진하나 그간 주춤했던 내수지표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실적이 늘면서, 작년 4분기 부진했던 전산업 생산이 올해 1분기 들어 소폭 반등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 전산업 생산(전월비, %): ('22.7)0.3 (8)△0.5 (9)0.0 (10)△1.1 (11)△0.5 (12)0.1 ('23.1)0.1 (2)0.3

1월 부진했던 소비는 일시적 애로요인이 해소되고 대면활동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와 재화 소비 모두 개선되었으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는 모습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어려운 국내외 실물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방역규제 추가완화 등에 따른 대면활동 확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수출 부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수출(전년동기비, %): ('22.10)△5.8 (11)△14.2 (12)△9.7 ('23.1)△16.4 (2)△7.5 (3.1~20)△17.4

소비·투자는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소비자·기업심리 개선\*\*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높은 물가·금리 수준, 반도체·부동산 경기 하강, 가계부채 부담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된다.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 소비자·기업 심리지수('23.1→2→3월): (소비자<sup>CSI</sup>)90.7→90.2→92.0 (기업<sup>BSI</sup>)69→69→72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 가능성에 유의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 대응하고, 금융·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집행(383조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활성화 대책(3.29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 통과 계기로 기업의 수출·투자애로 해소노력을 강화하고, 한-일 정상회담, UAE 수주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신성장 4.0 본격 추진과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건전재정 기초 확립 등 중장기 경제체질 개선노력도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044-215-2731)
			사무관	정동현 (044-215-2732)
			사무관	박영우 (044-215-2735)
			사무관	김선익 (044-215-2733)